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2

충현의 만나

2008

가정예배 · 사무엘하 · 열왕기상

베드로전 · 후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교회
가정예배 구역예배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2

2008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사무엘하 · 열왕기상
베드로전 · 후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 ①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마 4:17)라는 참 믿음의 고백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마 16:24)를 지는 담대한 믿음(창 15:1)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 ② 사순절(2.6.~3.22.)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 ③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 ④ 25개 교구와 23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마 16:18)로 세워지게 하소서.
- ⑤ ‘선훈련 후지원’의 선교방향에 발맞추어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훈련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 ⑥ 1·1·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⑦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시며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 ⑧ 모든 위원회에 속한 부서들과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과 공사 중인 수양관, 본당 외벽석재 보수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⑨ 2008년 제1차 청지기훈련(2월 22일)에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위임목사님을 성령으로 찬탄하게 하소서.

죄사함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봅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에 비할 수 있는 세상의 그 무엇이 있습니까!

에스와 그의 백성(스 8:21~23)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때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거하십시오.(벧전 1:3~5)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짓하겠지만

그 때마다 죄 사함의 은총(마 9:2~8)을 베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마 11:2~6)

예수님의 열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하늘의 것들로 풍성할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오직 하나!

죄 사함의 능력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8년 2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 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매일 성경묵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역사상 내전을 통해 왕이 된 자들은 후환을 없애기 위해 전왕의 일족을 모조리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으나 다윗은 진정한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을 기억하여 그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였습니다. 과거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로부터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이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를 데려와 사울의 영토를 그에게 주고 자신의 상에서 먹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1~8절) 또한 종을 주고 시바로 하여금 온 가족이 므비보셋을 섬기도록 명하였습니다.

므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였지만 다윗은 그를 후대하고 왕자와 같이 대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 받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예배나 기도나 찬양만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날 상대방이 자신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그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성도들이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듯이, 우리 성도들도 우리를 미워하며 핍박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을 붙잡히 여겨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고하며 형제의 잘못을 끊임없이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삼하 9:1)

기도 제목 ① 우리를 피흘려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암몬, 모압 동맹군과의 전쟁은 사무엘하 8장에 나타난 정복전쟁과는 성격이 다르게 가나안족속의 연합군이 먼저 다윗에게 대항함으로써 발발하였습니다. 암몬 왕이 죽자 다윗은 진심으로 조문 사절을 보내었으나 하늘은 다윗의 진실을 왜곡하고 의심하여 조문 사절을 모욕하고 돌려보내었습니다. 후에 하늘은 다윗의 분노를 두려워하여 용병을 규합하고 먼저 전쟁을 벌였으나(1~8절), 다윗이 파견한 요압 군대에게 대패하고 맙니다.(9~14절) 1차 전투에서 패한 아람 군대는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전투에 임했으나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이끈 군대에 의해 격파당하고 맙니다.(15~19절)

조문 사절단을 보낸 다윗의 호의를 무시한 하늘은 다윗에 의해 격멸당합니다. 이처럼 성도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하며 오히려 악으로 갚는 자는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믿음을 깨고 하나 됨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만연해 있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대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겸손히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마음을 찢으며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하여 십자가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외식과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때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삼하 10:12)

기도 제목 ① 십자가에서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이에게 진실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충천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스라엘 군대를 암몬과의 전쟁에 내보내고 왕궁에 있던 다윗은 목욕하던 밋세바를 발견하고 그를 데려다가 동침합니다.(1~5절) 그 후에 밋세바가 잉태하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전장에 나간 밋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 동침케 하지만 우리아가 이를 거절하자(6~13절)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 전쟁에서 전사하도록 명하였습니다.(14~21절) 결국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전사하였고, 다윗은 밋세바를 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습니다.(22~27절) 다윗 역시 악한 죄인이며, 죄의 유혹 앞에서 모든 사람은 연약한 자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를 죽이라는 다윗의 편지를 받은 요압은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철저히 충성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이었고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먼저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인간적인 관계나 자신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의 예루살렘에서의 모습은(1~5절) 나태해진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승리로 이어지는 전쟁에서 교만과 안이함으로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와같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찌르면 우리는 10초도 안되어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매순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발꿈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도 말쑥을 붙들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요압이 그 성을 실패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 곳에 우리아를 두니”(삼하 11:16)

기도 제목 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정결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밋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다윗은 나단 선지의 질책을 받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범죄를 책망하셨습니다.(1~12절) 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지만 범죄에 대한 징벌로 밋세바 사이에서 낳은 첫 아들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13~25절)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회개를 하였으며(시 51:1~10),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무겁고 더럽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은 죄 중에서 잉태되어 날 때부터 죄악 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시 51:5)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매순간 자신의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시 51:11~19)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으면 의로운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은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는 행동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고, 마음이 아파도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외식자입니다. 주님의 깨끗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죄에 대해 민감하게 경계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와 자유함으로 채워 주십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삼하 12:13)

기도 제목 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뜻대로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죄의 결과로 다윗 가문에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장자인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연모하였고 때마침 이를 알게 된 친구 요나답의 간계로 암논은 다말을 유인하여 강간하게 됩니다.(1~14절) 암논은 다말을 범한 후에 그녀를 미워하여 버립니다. 이에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은밀한 중에 복수를 도모하게 되고(15~22절), 이 년 후 압살롬은 양털 깎는 날 모든 왕자들을 초청하고는 미리 계획한 대로 암논을 살해하였습니다.(23~29절) 죄는 계속해서 다윗의 집에 불행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죄의 무서운 결과인 것입니다.

이복누이인 다말을 강간하고 버린 암논의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가 그러한 죄를 짓는 데는 요나답이라는 간교한 친구의(3절)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이는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다윗은 요나답이라는 진실한 믿음의 친구를 사귀므로 역경을 벗어날 수 있었고, 암논은 친구를 잘못 사귀므로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제일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악한 죄악에서 지켜 주시는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친구가 되십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도 배반하고 떠나며 상처를 주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늘 사모하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삼하 13:3)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을 친구 삼아 오늘 하루도 함께 동행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천국 일꾼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온 이스라엘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압살롬의 반역의 시작으로 만형 압논을 피살한 일로 도망갔던 압살롬이 요압의 도움으로 귀환하게 됩니다.(1~27절) 그리고 다윗과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28~33절) 다윗 왕가의 비극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렇게 조용히 끝날 수 있는 성격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요압의 경솔함과 충성을 가장한 이기적인 치세술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혼란과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13~14절) 그리스도인은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잣대로 삼아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압살롬은 도망하니라”(삼하 13:34)는 말씀을 반복함으로써 그가 만형 압논을 고의적으로 피살한 사건이 큰 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압논의 음행사건과 압살롬의 살인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무서운 반역사건이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온 평화는 살얼음판처럼 금방 깨질 수 있는 거짓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으로 진실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로부터 옵니다. 탁월한 용모에도 불구하고 죄를 간과한 압살롬의 마음속에서는 음흉한 반역의 음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나아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의지할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할 뿐만 아니라 단호하게 거절하며 잘라내는 영적 결단이 매순간 필요합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삼하 14:21)

기도 제목 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소서. ② 죄인들을 위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압살롬의 반역과(1~12절) 다윗의 도피과정(13~37절) 통하여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로 말미암는 이스라엘의 혼란과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데 불성실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한 경고에도(삼하 12:10~12) 자녀들의 죄를 간과함으로써 자신과 온 집안과 나라가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과의 위장된 화해로 자신의 지위가 회복되자 교활한 술책과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반란을 추진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주저 없이 이용합니다.(8절)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다윗 왕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하며 백성을 기만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인정받고자 간교하게도 헤브론에서 대관식을 가졌습니다.(삼하 2:1~2)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의 도피가 시작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처없는 유랑의 길로 다시 나서야 했습니다.(20절) 다윗은 겸손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며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25절) 고백하며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반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 압살롬과 대조적으로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는 다윗의 겸손한 자세는 삼하 20:3에서 성취됩니다. 자신의 범죄로 인한 고난이 있지만 겸손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채워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오십 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삼하 15:1)

기도 제목 ① 믿음의 영적 유산을 계승하는 기정이 되게 하소서. ② 민족의 명절을 맞아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우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본문/삼하 16장 찬송가/279장

압살롬의 반역사건 때문에 도피 중이었던 다윗은 기회주의자 시바의 술책(1절)과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의 악행(5절)과 아히도벨의 악한 모략(20절)으로 인해 더욱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현재의 고난을 겸손하게 수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징계의 결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악독한 저주를 들으면서 분노하기보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12절)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렸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며 죄를 뉘우치고, 그 치욕을 묵묵히 감당하는 다윗의 근신하는 마음이 자신을 부인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가 “생명 싸개”(삼상 25:29)로 보호받는 순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의지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의지하였습니다. 치밀하고도 완벽한 그의 전략은 반드시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람의 지혜일 뿐입니다. 본문은 악인의 행동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비밀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입니다. 고난과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으며,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시는 은총의 비밀을 깊이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삼하 16:10)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해서 금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압살롬의 반란은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친 다윗을 살해하고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으로 군림하려는 그의 목적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악한 모략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대적했던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압살롬의 급속한 쇠퇴가 이미 예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의 길이 형통하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시 1:6) 악인은 번성하고 어둠의 권세가 역사를 주도해 가는 것 같아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삼하 15:31) 다윗을 이 고난에서 구원하시기로 명령하셨습니다. (14절) 이 명령은 압살롬이 자유의지 대로 행동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공활을 베푸시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사 인간의 역사를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다윗 왕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후세의 충성과 희생적 헌신이 아름답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이름 없는 여인 등의 위험을 무릅 쓴 헌신적인 도움은 다윗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 형제가 고통으로 신음할 때, 도움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의 헌신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 15:13)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요 방패시며 도움이십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매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삼하 17:23)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다윗은 마하나임에 진을 치고 전열을 재정비합니다.(1~5절) 압살롬의 군대를 진압하기 위해 출전한 다윗의 군대는 에브라임 수풀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결국 압살롬은 죽임을 당합니다.(6~18절) 압살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삼하 17:14) 하나님은 악인의 모략과 경영을 막으십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의인을 위한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삼하 7:8~16)과 그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합니다. 모든 사건의 기원이 다윗의 범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원과 회복은 신실한 언약 성취자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진정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다윗의 승리 뒤에는 “함께 나가리라!”고 말하며 백성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 지도자의 사랑과 “나가지 마소서!”라고 말하며 지도자를 사랑하는 백성들의 충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심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고난 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승리의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전하기 위해 달음질하는 아히마아스의 충성된 모습에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신(골 2:15) 예수님을 전하려는 전도자의 뜨거운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뜨겁게 일어나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우리의 헌신이 있기 원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삼하 18:19)

기도 제목 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의 극한 슬픔(1~8절), 다윗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9~39절), 이스라엘의 갈등(40~43절)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다윗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자 먼저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다시 받아들였고 다음에는 유다가 받아들였습니다. 베냐민지파는 물론 사울의 집까지도 다윗에게 굴복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요단강 건너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3~24)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데려 오는 권한을 놓고 서로 다투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논쟁은 다윗이 완전히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으나 주도권 싸움에서 기인하는 문제의 소지가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24~39절은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시므이와 악한 꾀계를 도모했던 시바의 이중적인 태도와 대비되는 므비보셋과 바르실래가 다윗을 영접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떠난 날부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는 므비보셋의 애도와(24절) 철저하고 무조건적 헌신으로 다윗을 공개한 바르실래의 겸허한 고백은(34~37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 신앙적 삶의 모본을 제시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자랑하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갈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삼하 19:14)

기도 제목 ① 담대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② 충현의 성도들이 선교에 방관자가 없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베냐민지파 비그리의 아들 세바는 상처받은 이스라엘을 충동질하여 반역을 도모하였습니다.(1~2절) 세바의 반역 사건은 유다와 이스라엘간의 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친위부대를 동원하고(6~7절) 아벨의 한 여인이 지혜와 용맹을 발휘하여, 아벨 사람들로 하여금 세바의 목을 베어 요압 장군에게 던지게 함으로써 내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14~22절) 여호와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권에 대한 위협과 도전은 성공적으로 진압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개인의 구원이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적 사역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을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깊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개입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권을 회복하고 행정조직을 재정비하였으며 자신을 위하여 충성하였던 용사들을 등용하였습니다.(삼하 8:10~18) 화해와 회복과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약점과 단점 그리고 계속되는 허물과 죄악을 드러내면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언약의 약속대로 그를 계속적으로 보호하신 것과 다윗 왕조를 보존하신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으며 또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도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 다 하라”(삼하 20:16)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②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과 수양관, 본당 외벽석재 보수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스라엘에 삼 년 기근이 일어났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내용상 압살롬의 반란 이전에 발생하였습니다. 사울이 과거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수 9:15, 26~27) 기브온족속을 격멸한 죄로 다윗 시대에 삼 년의 기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제외한 사울의 일가를 그들에게 내어 주어 죽이게 함으로써 기브온의 원한을 풀어 주었습니다.(1~9절)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은 그동안 방치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취해서 베냐민 땅 셀라에 장사지냈습니다.(10~14절) 그 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발생하였고 다윗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이 기브온족속에게 사울 일가를 내어준 인은 비인간적이고 요나단의 우정을 저버린 처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리스바(8절)는 사울의 첩으로 이방여인이었으며(삼하 3:7절), 메랍(8절)은 사울의 장녀로 처음에 사울은 그녀를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했으나 그 약속을 어기고 아드리엘에게 주었습니다. 결국 죄 문제의 해결 없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사랑을 베풀되 공의롭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며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더욱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삼하 21:7)

기도 제목 ① 모든 일에 공정한 판단과 행동을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교회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힘난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주적으로 이어지는 모든 성도들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 찬양은 시편 18편에서 다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참된 반석이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1~7절)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권능이 있으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8~16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무조건 위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로 행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17~28절)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며(29~46절)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47~51절)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은 자신의 영광이 결코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의 구원자이시며 반석이 되셔서 모든 전쟁과 길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시며 참 목자가 되셔서 의의 길로, 푸른 초장으로,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매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건지시는(2,17,18,44,49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지요 나의 방패지요 나의 구원의 뿔이지요 나의 높은 망대지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지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 하셨도다”(삼하 22:3)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여 주소서, ② 교회의 청지기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말년에 다윗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은 노래와 회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1~7절)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부흥에 대한 소망이지만, 장차 있을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도 함께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 왕국을 건설하고 발전시킨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은 요셉밧세벳과 엘르아살, 삼마로서 블레셋을 격파한 일등 공신들이었습니다.(8~21절) 그 외에도 희생적으로 다윗을 섬긴 아버지, 브나야와 또 한 명의 용사(22~23절)와 30인의 용사를 회고하고 있음을 봅니다.(24~39절)

3~4절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돕는 해의 아침 빛 같고”라고 다윗의 후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에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라고 다윗은 자신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원토록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야말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언약이며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형통함을 인해서만 기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갈지 아니하나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삼하 23:5)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복음의 정결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다윗이 범한 두 번째 심각한 죄와 그 결과로 인하여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압으로 하여금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남자를 기준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하도록 명하였습니다.(1~9절) 이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다윗이 곧 회개를 하였지만(10~14절) 결국 이스라엘 전국에 3일 동안 온역이 임하였으며 많은 백성이 죽었습니다.(15~17절) 이 재앙은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비로소 그쳤습니다.(18~25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려던 교만한 다윗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보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 했던 다윗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도자의 잘못이 모든 백성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오는지를 교훈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의 청지기로 있을 때일수록 더욱 조심하여 말쑥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부인하는 심령이 되셨습니까? 매순간마다 솟아오르는 정욕과 자기 의를 자랑하는 죄인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 사함과 용서를 허락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삼하 24:10)

기도 제목 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② 남전도회 중심의 총력 교회주변 전도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다윗이 매우 쇠약해져 더 이상 통치가 불가능해진 상태(1~4절)를 틈타 아도니야가 반란(5~10절)을 꾀하지만, 선지자 나단과 솔로몬의 모친 밋세바는 반란의 부당성을 다윗에게 말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리라 약속한 바를 속히 실행토록 종용하여 솔로몬을 즉위시킵니다.(11~40절) 이 일은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솔로몬을 택하사 그에게 왕위를 주기로 뜻을 정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결코 변치 않았습니다.(대상 22:9) 이와 같은 이유로 아도니야의 거사는 실패했고, 솔로몬은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성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이와 같습니다. 결단코 변치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에 우리는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음에도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있었기에 솔로몬은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대제사장 사독과 시위대장 브나야는 세력의 판도가 아도니야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 이처럼 신실한 일꾼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당신의 뜻을 역사 속에 실현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욕심을 좇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왕상 1:39)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② 모든 교회학교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땀은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솔로몬이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마침내 왕권을 완전히 확립한 사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 속에는 왕국을 튼튼히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히 행하는 삶이었습니다.(4절) 다윗은 70년 생애를 돌이켜 보면서 감회어린 심정으로 그 모든 체험을 통해 얻은 진리 한 가지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한 어디를 가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면 형통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3절) 과연 다윗의 삶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는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욕심을 좇아 살 때에는 실패와 고통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 이 귀한 진리의 사실을 솔로몬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 앞에서도 지혜롭게 행할 것을 권면했습니다.(28~46절) 구체적으로 악을 행한 요압과 시므이에게는 그에 따른 마땅한 형벌을, 선을 행한 바실래에게는 그에 대한 합당한 상급을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곧 악한 것을 악하다 하고 선한 것을 선하다고 하면서 악을 제거하고 선을 장려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삶을 원하십니까?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진실되게 행하는 삶이며 은총과 긍휼을 체험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실천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 나오는 간증은 '예수님이 답'임을 깨달은 영원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왕상 2:12)

기도 제목 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②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제1차 청지기 훈련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4~15절) 이 기도는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기도로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제일 먼저, 기도드리는 자의 영적 갈급함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4절)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헌신을 하겠다는 열심과 성의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교훈하신 힘없는 과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관에게 호소하고 또 호소한 것과 같습니다.(눅 18:1~8)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드리는 기도입니다.(9~10절) 일천번제 후 꿈속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5절) 그 때 솔로몬은 맡겨주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9절)

솔로몬의 이러한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10절) 개인적인 욕망을 좇아 장수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혜는 물론이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보장받았습니다.(13절) 기도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이기적인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합니다.(약 4:3) 그런즉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왕상 3:9)

기도 제목 ① 개인적인 욕망을 좇아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도하게 하소서. ② 제1차 청지기훈련에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인재를 등용하여 각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세움으로써(1~19절) 평화로운 왕국을 건설한 내용과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20~34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더욱 좋은 천국에의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왕국은 곧 의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통치되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천국에 비하면 솔로몬 왕국은 한낱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이 땅에 세워진 솔로몬 왕국은 불안전하고 일시적인 왕국일 뿐입니다.

반면에 천국은 영원무궁토록 풍요와 지혜가 넘치는 완전하고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천국의 일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사 11:6~9) 사도 요한 역시 밧모 섬에서 환상 가운데 천국의 일면을 보았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다시 사망이 없고”(계 21:1~4)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천국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천국의 시민 된 긍지를 가지고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빌 3:20 : 히 11:13~16)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부끄럽지 않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왕상 4:29)

기도 제목 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연연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② 청지기훈련 시 말씀을 증거하시는 위임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숙원 사업인 성전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이 생전에 간절히 희망하고 바랐던 일이었습니다.(삼하 7:2~3)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뜻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을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삼하 7:12~13) 마침내 다윗은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히람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크게 기뻐하여 성전건축에 적극 조력한 것은 특별한 은혜였습니다.(7~12절) 당시 이스라엘과 두로는 서로 인접한 국가이기는하나 종교가 서로 다르며 또한 경쟁관계였습니다. 그런데도 히람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솔로몬을 도와 성전건축에 기여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히람의 마음을 주장하신 결과이며 성전건축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솔로몬의 신앙과 지혜, 부귀 영화는 물론 두로 왕 히람의 도움까지 모두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를 준비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건축에 참여하게 된 것은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장차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분과 교제를 나누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재목과 돌들을 갖추니라”(왕상 5:18)

기도 제목 ① 우리를 충성되이 여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② 제1차 청지기훈련을 준비하는 모든 종들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시련과 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한 베드로의 서신은 각처에 흩어진 성도들을 나그네와(1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2절)라 칭하는 문안인사로 시작합니다. 성도란 세상에 영원히 지하지 않는 나그네이며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7절)고 말씀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19절)고 말씀하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며(21절) 순종함으로 영혼의 구원 받음(9절)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할 뿐 아니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화로운 유업을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가지 시험은 시련을 견뎌내는 믿음이 되며 시련을 통하여 정결케 되고, 연단케 되며, 더욱 견고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한다(7절)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23절) 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이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며 이것이 곧 ‘복음’이며, ‘복음’이 곧 ‘말씀’(25절)이라고 선언하며 1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키시고, 영원하시며 신실하십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 1:19)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깨끗케 하시는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② 제1차 청지기훈련 가운데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4절) 이는 믿는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9절)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24절)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셨지만 친히 나무에 달려 고난을 받으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21절)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는 창에 찔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땀을 때렸습니다. 얼굴에 침도 뱉었습니다. 그리고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너무나 치욕스러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수치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별전 2:24)

기도 제목 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② 모든 교사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말려진 영혼들을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성도가 가정에서 힘쓸 윤리와 의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며(1~12절), 성도 간에 지체임을 깨달으며 동정, 사랑, 불쌍히 여김, 겸손 등(8~9절)에 대하여 권고합니다. 이어 베드로는 '의의 고난'에 대하여 상기시키면서(17~22절) 성도가 선을 행할지라도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셨기 때문이며 이는 상급이 보장된 고난임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14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을 받았던 간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며, 인생의 시련과 시험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17절)라는 말씀은 경이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인기와 명예와 자기 의를 찾습니다. 십자가를 애써 외면하듯,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음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의를 위하여 고난 받음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15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벧전 3:22)

기도 제목 ①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② 학습 및 세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고난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때가 악할수록 더욱 근신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1~11절) 그리고 지금까지 언급한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결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12~19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13절)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당하게 되는 핍박과 치욕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 엄격한 경계선을 두지 않고 자신을 세속에 순응시키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는 자들만이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영광의 날에 얻게 되는 즐거움은 이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십시오.(13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16절)고 명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벨전 4:13)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1절)이라 자칭하는 베드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실패한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마 16:23)고 명하시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에 달려갔지만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요 21:3) 하며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만나 주시기 위하여 물고기를 잡으러 간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요 21:15~17)고 명하십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담대한 고백을 하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9절) 권면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가 당한 고난을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신다(10절) 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신의 전체를 다루는 문제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격려이며 이러한 고난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도 실패자입니다. 우리는 고난 당함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만나 주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확신에 찬 베드로의 고백과 간증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자칭하며 증인 되는 삶이 우리의 평생에 있기 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벤전 5:9)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에 속한 부서들과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소아시아에 흠어져 살고있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인사말과 성도들의 윤리적 삶과 집필 동기에 대한 내용(12~15절), 베드로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대답(16~21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이 썩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성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4절) 세상에서 윤리 도덕, 재물, 영광, 사람의 본성도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 하는 자(4절)가 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3절) 우리를 부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며 예수님의 크신 유업을 친히 본 자라(16절)고 말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함께 있어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17~18절)고 증언합니다. 친히 만났던 예수님의 실존과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20~21절)이라고 말하며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을 변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친히 뵈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분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앎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의 자녀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뱀후 1:10)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 시에 십자가의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거짓 교사들의 출현과 그 특징(1~3절), 거짓 교사가 받을 심판(4~10절), 불의함(10~19절), 운명(20~22절)에 대해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10절) 첫째는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합니다. 이들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둘째는 더러운 정욕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는 타락한 인간본성에 따라 단순한 음행의 차원을 넘어 영적인 간음인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구속주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런 불의한 자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음란을 행하는 불의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중국에 이 불의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수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이며 능력이며 지혜입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불의한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따르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 되어 있나니”(베후 2:17)

기도 제목 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을 증거 하면서 거짓 교사들을 논박한 내용(1~13절)과 이단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성도 자신의 영적 성장으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마지막 권면(14~16절)으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하게 일어나는 진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10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는 도적같이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마 24:43 ; 눅 12:39)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하늘과 땅이 물질이 뜨거운 불로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숨겼던 모든 죄악도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처럼 도적같이 임하여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날이 오면 이 세상의 고통과 근심 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만족만이 충만하게 넘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11절)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12~13절) 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며(3~4절)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좇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벧후 3:10)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선교위원회에 세움받은 일꾼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구약예배교재

2월 구약교재 초점

죄사함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로 믿을 때 우리는 은총의 자녀가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우리의 삶에 실재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잠깐의 고난에도 구주이신 예수님을 원망하고 믿음의 길에서 종종 벗어납니다. 참 복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매순간 믿음의 열매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초 점
0201	스 8:21~23	에스라와 그의 백성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0208	벧전 1:3~5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승리하자
0215	마 9:2~8	용 서	죄 사함의 은총을 베푸신 십자가를 바라보자
0222	마 11:2~6	그들의 열매로	고난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자

1.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소요시간 25분	소요시간 15분

1과 에스라와 그의 백성

| 초점 |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 찬송 |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 본문 | 에스라 8:21~23

²¹ 그 때에 내가 아하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²²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²³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낸 지 70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선지자로 있을 당시 바사 왕 아닥사스다 1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고국으로 가서 성전 건축을 돕도록 허락했습니다.

스 7:12~13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든 목적이 영적인 회복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레위인들이 함께 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들을 소집하기 위해 특별 전령을 보냈습니다.(스 8:18~20) 마침내 백성이 고국으로 귀환 할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 에스라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 귀환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에스라는 금식과 기도를 통해 백성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스 8:21 / 그 때에 내가 아하와 강 가에서 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하였으니

시 121:1~2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과 자녀들, 소유물 모두가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중한 모든 것들이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때 에스라는 간절하게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 27:8

사 26:9

※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언제나, 특별히 절망적인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이 있으면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하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스 8:22 /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_____
_____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
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아닥사스다 왕은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군사들을 내주
겠다고 했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확실했습니다.

※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 심각한 상황에 하나님과 사람 중에서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믿음을 실천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도록 도왔
습니다.

시 46:1~3 / 하나님은 우리의 ☐☐☐시요 ☐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
☐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
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할 것을 요구했
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입
니다.

※ 시편 23:4 말씀을 묵상한 뒤 다음의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 고난의 순간에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 눈앞의 일들이 두렵게 느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까?
- 환난의 골짜기를 하나님과 함께 헤치고 걸어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에스라와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스 8:23 /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하여 우리 하나님께 ☐☐하였더니 그의 ☐☐하심을 입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십니다.

요 16:23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_____ 주시리라

왕상 18:37 / 여호와여 _____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 최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한 것들 가운데 응답받은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귀환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시 80:19

행 16:31

지금 혹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위험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즉시로 참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하나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믿게 하소서
2.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2과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 초 점 |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승리하자

| 찬 송 |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 본 문 | 베드로전서 1:3~5

③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④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⑤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된 모든 위대한 축복들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는 거둡나게 되고 산 소망을 얻게 됩니다.

벧전 1:3

※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생긴 내 안의 소망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의 지식과 경험, 열정과 노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 내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이 가진 그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계 19:1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살아야 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강력한 힘을 가진 우리의 적입니다.

롬 3:23

롬 5:18

죄로 가득한 흔적을 돌아보십시오. 아담은 금지된 열매를 먹었고 가인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야곱은 형을 속였습니다. 다윗은 간음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으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습니다. 분명히 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빌 1:27

복음은 단지 기쁜 소식만이 아니라 전파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일꾼이 됩시다.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도와주십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감주를 입어야 합니다.

벧전 1:5 /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을 얻기 위하여 ☐☐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심을 받았느니라

엡 6:11~12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세력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막 2:10

요 1:12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은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견줄 만한 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고전 1:24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살아야 합니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종말은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종착역은 천국이 됩니다.

요일 5:4 /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는 이것이니 우리의 이니라

고전 15:57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를 주시는 하나님께 하노니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이 십니다. 이 진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다른 것들이나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참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 핍박자 사울에서 순교자 바울이 되기까지 그의 삶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갈 2:20

고전 2:2

십자가로 路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과 위험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을 때 실패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삶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 :24~25

살전 5:23~24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에 관계 없이 우리의 삶은 감사와 기쁨으로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하나님의 능력 아래 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2.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3과 용 서

| 초 점 |

죄 사함의 은총을 베푸신 십자가를 바라보자

| 찬 송 |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가 406장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 본 문 | 마태복음 9:2~8

②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③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④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 앞에 이끌려 나와 있습니다.

※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한 일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막 2:1~8)

갑자기 지붕이 뚫리면서 중풍병자가 누인 침상이 내려왔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막 2:2

요일 4:10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치유의 첫 메시지에 사람들은 매우 의아했습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죄사함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관심은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보다 죄 용서가 더 중요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사함보다는 현실적인 축복을 원합니다. 죄 사함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지만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롬 6:6

※ 죄 사함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교회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 사함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죄 사함은 예수님처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눅 5:32 / 내가 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을 불러 시키러 왔노라

벧전 3:18 /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_____
_____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골 2:14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마 9:5~6 / 네 _____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_____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나아갔을 때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마 3:7~8)고 소리쳐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마 4:17

죄 사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행 2:38 /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_____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엡 1:7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로 말미암아 ☐ 곧 _____

※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써 보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구약 전반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용서하셨지만 백성들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일 2:12 /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가 그의 으로
말미암아 을 받았음이었

우리는 자신의 죄를 끔찍하게 생각하기는커녕 거듭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생각보다는 성공과 행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 내가 생각하는 죄의 무게와 예수님과의 믿음이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 지금 죄에 대한 문제보다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당신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마 6:14~15

마 18:35 /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죄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을 수 없게 만들지만, 믿음은 천국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줍니다. 믿음으로 걸을 때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골 1:14

행 26:18

예수님의 권세는 떡과 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죄 사함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섬을 주시기 위해 자신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을 베푸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죄 사함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님만 믿게 하소서
2. 죄 사함을 받은 우리의 삶이 용서의 삶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사순절을 통하여 십자가를 마음에 각인하게 하소서

4과 그들의 열매로

| 초 점 |

고난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자

| 찬 송 |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에 서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 본 문 | 마태복음 11:2~6

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㉕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㉖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㉗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사야는 세레 요한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하였습니다.(사 40:3~5)

※ 세레 요한에 대한 평소 나의 생각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세레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특히 마리와와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예수님과 세레 요한과의 특별한 관계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눅 1:41~42)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세레 요한은 아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눅 1:17

눅 33~6

마 33

세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증거하고, 증명하고, 설명하는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되었습니다. 세레 요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투옥된 세레 요한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실하게 예비하였습니다.

요 1:23 /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에서 외치는 자의 □□로라 하니라

요 1:29 /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종이요 진실된 증인으로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조금의 의심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을 책망한 일로 인해 감옥에 갇힌 후 그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마 11:2~3 /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_____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했던 자였지만 자신만의 하나님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닥쳤을 때 그의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렸던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을 그의 제자들에게서 듣고 곧바로 대답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 11:4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을 설명하셨습니다.

※ 마태복음 7:15~20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경고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하며 또 다른 의미를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베드로도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하였던 베드로가 범한 실수는 무엇입니까?(마 16:22)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십니다. 이처럼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마 11:5

세례 요한은 말씀을 읽었고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과 달랐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거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 우리의 삶에서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의심으로 갈등했었던 경험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성경을 말씀 그대로 단순히 믿을 때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예수님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점에 맞추기 위해 멋있는 의미들을 가져다 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마 23:27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삼 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군병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보고했을 때 돈을 주며 거짓말을 퍼뜨리게 했습니다.(마 28:11~13)

※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한 적은 없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마 11:6

딤후 4:6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 열매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열매를 보고 그분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시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믿음뿐입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예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주소서
2.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3. 제차 청지기훈련이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용 서

⁽²⁾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⁶⁾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⁷⁾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⁸⁾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복음 9:2~8)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 앞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대담한 네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끌어올려 그곳에 구멍을 내고 예수님이 서 계신 바로 앞에 그를 매달아 내렸던 것입니다. (막 2:3~4)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상황에서 그들은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결단, 사랑, 희생에 대해 언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2절) 예수님

은 신실한 네 사람이 아니라 그 병자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무리 가운데 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참람한 말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중풍병자는 어떻게 이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 알았을까 속으로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확신하건대 그 날 그곳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는 것보다 그의 병을 고치시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보다 죄 사함이 더 중요했습니다.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사함보다는 현실적인 축복을 원합니다. 죄 사함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지만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과 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 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 사함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죄 사함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세상의 법을 어겨 구속되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법정은 아무 대가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석방해주지 않습니다.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은 친분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반응은 중풍병자에게서 회개나 선행 또는 뉘우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언급되지 않은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말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2절)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5~6절) 분명히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는 말처럼 그 효력이 쉽게 증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자신의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나아갔을 때 요한은 그들을 향해 소리쳐 책망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마 3:7~8) 다시 말해 요한은 회개하기 원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구약 전반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을 용서하셨지만 백성들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꼼꼼하게 생각하기는커녕 거둬들여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축복을 받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14~15은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은 믿음을 실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마 18:35) 중풍병자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곧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네 사람처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올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죄는 여러분이 좁은 길을 걸을 수 없게 만들지만, 믿음은 천국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줍니다. 믿음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줍니다. 믿음으로 걸을 때 여러분의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 28:18)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자신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 18:18) 예수님의 권세는 떡과 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죄 사함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자신에게 나아오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믿음으로 천국의 길을 걷게 하심을 인해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다른 영혼을 주님께 데리고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은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08년 2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양재웅 유재진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05-1 전화 832-8200) (비매품)
